

서민들 어쩌나... 무주택자 대출금리 줄인상

버팀목·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에
특례보증자리론 금리 상승 예고

주금공 “추가금리에도 낮은 수준
국고채·MBS금리상승에 불가피”

최근 무주택 차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민들의 주택 마련 자금을 위한 버팀목·디딤돌대출의 금리가 인상된 가운데 특례보증자리론의 금리까지 덩달아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0.3%포인트(p) 인상됐다.

버팀목·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실행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주택대출 상품이다. 버팀목대출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전세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국토교통부 고지에 따른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며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구입용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2.15~3.0%에서 2.45~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3.3%로 상승하고, 전세자금용 버팀목 대출(전세)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인상된다.

기존 2.15% 고정금리로 받은 경우, 3억원을 20년 동안 갚는다면 매달 153만 원을 갚으면 되지만, 2.45%가 되면 상환액이 158만원으로 뛰게 된다. 다만 금리의 적용 기준은 대출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행 전에 신청을 완료한 고정금리 대출 신청 건은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는다. 버팀목 대출은 모두 변동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출 실행일(잔금일)을 기준으로 금리가 적용된다.

문제는 고정금리 주담대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증자리론'의 금리가 추가 인상됐다는 점이다. 주금공이 지난 1월 말 출시한 특례보증자리론은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돈을 빌려준다.

지난달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특례보증자리론 금리를 오는 7일부터 일반형은 0.25%p, 우대형은 0.2%p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3.65~3.9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반형은 연 4.65%(10년)

~4.9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로 반영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월30일 출시된 특례보증자리론은 그동안 금리가 계속 동결돼 오다가 일반형에 한해 8월 11일 대출신청분부터 기존 연 4.15%(10년)~4.45%(50년)에서 연 4.40~4.70%로 0.25%포인트 인상된 바 있다.

다만, 주금공 관계자는 특례보증자리론의 추가 금리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최고 ~5.40% 수준이지만, 특례보증자리론 금리는 4.25~4.95%를 제공하고 때문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에게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으나, 국고채·MBS금리 상승에 따른 재원조달 비용 상승, 계획 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카드 News

SK텔레콤·KT

제휴카드
2종 출시

롯데카드 SKT·KT와 손잡고 제휴카드 2종 출시

롯데카드가 통신사와 제휴를 통해 신상품을 출시했다.

◆ SKT ‘텔로 라이트’...KT ‘DC 플러스’ 선택

롯데카드는 텔로 T 라이트 할부 카드와 DC 플러스 롯데카드를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텔로 T 라이트 할부 카드는 매달 최대 1만3000원을 캐시백을 제공한다. 연 말까지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게는 25개월 동안 프로모션 혜택을 추가해 최대 2만4000원을 돌려준다. T라이트 할부 서비스 수수료는 기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KT DC 플러스는 최대 1만3000원 할인을 지원한다. 24개월간 프로모션 혜택을 추가하면 최대 2만4000원을 결제할 할인한다. 두 카드의 연회비는 2만원이다.

국민카드 노리2체크 플레이 고객 롤드컵 직관 기회 제공

KB국민카드가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대회 직관 기회를 제공한다.

◆ 마스터카드와 협업 통해 경품 행사 진행

KB국민카드는 ‘2023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을 맞아 ‘KB국민 노리2체크카드 플레이’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라이엇게임즈가 직접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e스포츠 대회다. 전 세계의 프로 게임단이 참석한다. 행사 대상은 KB국민 노리2 플레이 체크카드(마스터) 신규 이용 고객이다.

총 180명에게 추첨을 통해 ▲롤드컵 결승전 티켓 ▲롤드컵 준결승전 티켓 ▲리그오브레전드 피규어 ▲리그오브레전드 스킨 ▲리그오브레전드 인게임 아이템 등을 선물한다. 이용금액 10만원당 추첨 기회 1회를 추가로 준다.

우리카드 아이 출산 서울시 가정 100만원 상당 바우처

우리카드가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금을 제공한다.

◆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 추가

우리카드는 서울시와 함께 산후조리 경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총 1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경비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이번 지원대상에는 다문화가정 산모도 포함한다. 단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김소영 부위원장, 동남아서 ‘K-금융’ 세일즈

(금융위원회)

8일까지 인니·베트남·홍콩 방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홍콩을 방문해 ‘K-금융’ 세일즈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인도네시아(자카르타)와 베트남(호치민·하노이), 홍콩을 방문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두번째 행보다.

김 부위원장은 4일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한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오픈뱅크

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김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금융 국제화 대응단을 신설했다. 지난 5월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이후

과 지급결제시스템, 부실금융사 정리시스템과 관련한 인프라에 관심이 많은 국가다.

6일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핀테크 데모데이에 참석한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교역국으로, 국내 금융회사가 가장 많이 진출해 있다. 베트남은 2025~2030 국가 디지털 전환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과 금융혁신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7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한-베 마이데이터 워크숍, 8일에는 홍콩에서 열리는 글로벌 투자자대상 정부 IR을 참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중앙아시아 방문은 금융회사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데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 동남아 3개국 방문은 실제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현지 영업으로 해소, 금융인프라 수출, 해외 투자 유치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며 “여러 행사에 참여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금감원, 추석 앞두고 보이스피싱 주의보

드라마형식 체험콘텐츠로 홍보활동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증가가 예상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융권 공동으로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 홍보기간은 4월부터 27일까지다.

금감원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를 실제 상황처럼 체험하는 방식의 콘텐츠를 개발했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메신저피싱과 대면편취형 방식을 혼합한 사례를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해 체험자의 단계별 상황 선택에 따라 다른 내용이 전개되도록 구성했다.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는 ‘보이스피싱 낚이지 말고, 아메리카노 낚아보자(냠냠)’ 이벤트를 실시한다. 체험형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메리카노 기프티콘(3만5000명)을

지급한다.

서울시와 연계해서는 시청 앞 광장에 보이스피싱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방법 공유 ▲피해시 대응요령 영상 시청후 퀴즈 ▲SNS 포토 해시태그 이벤트 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금감원이 제작한 금융교육 교재를 현장 배포하고, 금융교육 일정 및 신청방법도 안내한다.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시립노인복지관(19개)과 청년센터(17개) 등에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요령 포스터를 부착하고 홍보물을 배포한다.

보이스피싱 예방제도로는 ▲ATM 지연인출 ▲지연이체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IP차단 등이 있다. 대응요령으로는 ▲일괄 지급정지 ▲개인정보 노출등록 ▲명의도용 신고 ▲악성앱 삭제 등이다. /안성미 기자 smahn1@

“신뢰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 필요”

신한금융그룹 창립 22주년 맞아
진옥동 회장과 참신한 토크콘서트

“초기에는 도전정신이 넘치는 직원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이 필요하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창립 22주년을 맞아 열린 ‘참신한 토크콘서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참신한 콘서트는 창립기념행사를 대신한 것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간의 격의없는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진 회장은 진옥동 회장은 금융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미래 금융의 궁극적인 방향, 금융인의 바람직한 태도 등에 대해 강조했다.

진 회장은 2030세대 직원들이 가져야 할 인재상에 대해 “창업 초기에는 도전정신이 넘치는 직원이 많이 필요했지만, 성장의 시대를 거쳐 성숙의 시대로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왼쪽 첫번째)이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가는 현재의 신한금융에는 금융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이 필요하다”며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도경영에 관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